

韓·日 神話의 比較

玄 容 駿

I

韓·日 兩國은 地理的으로 隣接하여 있는 關係上 歷史的, 文化的으로 密接한 關係를 맺어 왔다. 두 民族은 人種的으로나 言語學的으로 매우 가까운 處地에 있으며 考古學的 出土品도 共通한 것들이 많이 發見되고 있다. 그 뿐 아니라 文字를 비롯한 大陸文化의 大部分이 韓民族을 通하여 日本에 傳達되었고, 또 歷代 韓國의 移住民들이 日本文化 形成에 큰 影響을 끼친 事實 등은 이미 常識이 되어 알려져 있다. 특히 金繩(禁繩, シメ繩), 獅子舞, 줄다리기 神木에 關聯된 信仰形態 등 많은 類似한 民俗이 兩國에 共存하고 있음은 古代로부터 兩民族이 文化的으로 親緣關係에 있었음을 말해 준다.

이러한 兩國의 文化的 親緣性은 神話에 있어서도 그대로 나타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當然하다. 그간 兩國의 神話의 類似性에 대해서는 三品彰英, 大林太良氏 등에 의하여 얼마간 研究가 되어 왔다.¹⁾ 그들은 주로 『三國史記』 『三國遺事』 등 韓國의 文獻神話와 日本의 古典神話와의 比較에서 이를 立證하려 했다. 그러나 韓國의 神話는 文獻神話만이 그 全部가 아니다. 韓國의 神話가 收錄된 主要한 文獻인 『三國史記』 『三國遺事』 등은 歷史를 敘述한다는 共通된 意識下에 神話を 收錄했기 때문에 그 神話들은 自然的으로 支配者起源神話 乃至 王權神話가 中心이 되었고, 農·漁民層의 神話는 거의 收錄이 되지 않았다. 따라서 韓國의 文獻神話가 日本神話의 解明에 도움이 되는 점은 주로 支配者起源神話 乃至 王權神話 分野가 되게 마련이고, 좀더 넓은 範圍의 比較를 試圖하려면 民間 口傳神話 傳說의 活用이 必要하게 마련이다.

近者, 張壽根氏, 依田千百子氏 및 筆者 등이 이러한 점에 留意하고, 口傳神話와의 比較를

1) 이를테면 三品彰英『建國神話의 諸問題』1971. 平凡社, 同『日鮮神話傳說의 研究』1972. 平凡社 등 『三品彰英論文集』全 6 卷, 1970—1974年, 東京 平凡社. 大林太良「神武天皇傳說と百濟·高句麗의 建國傳說」『日本神話의 構造』東京 弘文堂 1975. pp.228—260. 同氏「古代日本, 朝鮮의 最初의 三王의 構造」吉田敦彦編『比較神話學의 現在』東京 朝日出版社, 1975. pp.45—89.

2 논문지

通하여 兩國의 開闢神話의 類似性을 밝히려는 試圖를 시작하고 있다.²⁾ 本稿는 이들 成果의 基礎 위에 開闢神話, 生死神話 및 建國神話를 中心으로 兩國 神話의 親緣性을 概括적으로 究明하고 傳播論的인 授受關係에 接近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文獻神話는 勿論 民間의 口傳神話 傳說도 重視하여 比較에 活用하려 한다.

Ⅱ

太初에 天地가 어떻게 起源했느냐 하는 問題를 說明하는 것은 神話의 主要한 主題다. 그런데 韓國의 文獻神話는 이에 대한 一言半句의 說明이 없고, 日本의 神話 收錄 古典인 『古事記』나 『日本書紀』에도 具體的 說明이 없다. 그러나 日本의 이들 古典의 初頭에는 原初의 宇宙 狀態에 대한 觀念을 窺知할 수 있는 抽象的인 記錄이 若干 보인다. 그 內容을 보면 다음과 같다.

天地가 시작될 때, 다카마노하라(高天原)에 아메노미나카누시神, 다카무스비神, 가미무스비神이 태어났다. 다음에 國土가 마치 물 위에 뜬 기름처럼, 또는 해파리처럼 떠돌고 있을 때에 갈대 잎처럼 썩어 나는 것에서 우마시아시키비히요지神이, 다음에 아메노도요다찌神이 태어났다. 이들 五位의 天神은 다 獨神이었다. 다음에 구니노도요다찌神, 도요쿠모神이 태어나고, 그로부터 이자나기神 이자나미神에 이르기까지 男女 十位의 神들이 태어났다. 구니노도요다찌神 以下를 합쳐서 神代 七代라 한다. (『古事記』에서)

『日本書紀』에도 이와 비슷한 記錄이 있는데, 그것은 中國의 『三五曆記』나 『淮南子』의 開闢神話 文章을 模倣하여 記錄하고 있는 점이 多少다를 뿐이다. 보는 바와 같서 위의 記錄은 解釋이 어려운 알송달송한 記錄이다. 大林太良氏의 分析에 따르면 이 記錄은 아메노미나카누시 구름, 구니노도요다찌 구름, 우마시아시키비히요지 구름의 세 가지 異傳의 開闢神話가 習合 縮約된 것이다. 그중 아메노미나카누시 구름 神話의 特徵은 天神, 創造神의 觀念이 강한 점이고, 구니노도요다찌 구름의 特徵은 原初의 混沌했던 宇宙의 各 進化段階를 出現하는 神名의 羅列로써 說明하는 것이며, 우마시아시키비히요지 구름의 神話의 特徵은 太初 宇宙가 混沌하고 있을 때 國土가 아직 固定되지 않아서 마치 물 위에 뜬 기름이나 해파리처럼 浮動하고 있었다는 觀念이 있다는 것이다.³⁾ 이러한 國土浮動의 表象은 『出雲風土記』의 國

2) 張壽根 「韓日創造神話의 比較」 1976. 5月 關東大學 主催 東北亞細亞民俗學 심포지움에서 發表. 依田千百子 「日本神話と朝鮮神話」 『國文學解釋と鑑賞』 37卷 1號 東京, 1972. pp. 122-129. 玄容駿 「日本神話と韓國神話」 大林太良編 『日本神話の比較研究』 東京, 法政大學出版局, 1974. pp. 69-97.

3) 大林太良 『日本神話の起源』 東京, 角川書店, 1961. pp. 21-39.

土牽引神話에도 나타나 있고,⁴⁾ 오늘날은 傳說化하여 日本의 南西諸島,九州,伊豆地方의 「떠오르는 섬 傳說」⁵⁾에 남아 있다고 했다.⁶⁾

韓國의 文獻神話에는 이러한 原初的 觀念을 發見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없다. 그것은 『三國史記』 『三國遺事』 등의 編纂意圖가 三國의 建國由來를 說明하는 데 重點을 두고 있기 때문에 宇宙開闢에 대한 이야기는 收錄하지 않은 데 理由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日本의 境遇, 國土浮動의 原初的 觀念이 傳說로서 傳承되고 있는 것처럼, 韓國에도 그러한 觀念이 傳說로서 現在 民間에 傳承되고 있음을 發見할 수 있다.

濟州道 北濟州郡 翰林邑 翰林里 앞 바다에 있는 飛揚島는 본래 대륙 쪽으로부터 조류에 밀려내려 온 섬이다. 어느 날 임신한 海女가 해초를 캐다가 큰 섬이 떠오르는 것을 발견하고 그 섬에 올라가 쉬다가 소변을 보아 버렸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떠 흘러오던 섬이 그 자리에 멈추어 버렸다. 또는 임신한 女人이 떠오르는 섬을 발견하고 「야, 저기 섬이 떠온다」고 소리치며 손가락질을 해 버리자, 섬은 그만 그 자리에 멈추어 버렸다고도 한다. 이것이 飛揚島라 한다.⁷⁾

이것은 섬이 浮動하고 있었다는 觀念을 말해 주는 傳說인데, 大邱의 達城山의 경우는 산이 떠 흘러왔다고 하여 팔래하던 女人의 妄言 때문에 現在의 자리에 멈추어 버렸다고 傳한다.⁸⁾ 섬이나 산이 떠 내려왔다는, 이런 傳說은 널리 分布되어 있어, 綾羅島, 岩島, 德川山, 公州山, 浮山, 來山 등에 結付되어 各地에 傳承되고 있다.⁹⁾

4) 「出雲風土記」에 있는 國土牽引神話의 內容은 다음과 같다.

야즈가미스오미즈누神이, 이즈모(出雲)國이 처음부터 너무 좁게 만들어졌음을 한탄하고 멀리 시라기(志羅紀)의 三崎 쪽을 보니 비어 있는 땅이 있으므로 이 땅에 큰 밧줄을 던져 걸고 잡아당겼다. 그 땅은 神이 당기는 대로 바다 위를 떠 와서 이즈모(出雲)國에 붙고, 그래서 나라가 넓어졌다는 이야기다. 國土가 물 위에 떠 있어서 끌어 당기는 대로 移動해 왔다는 國土 浮動의 表象이 보이는 것이다.

5) 一例로 奄美諸島의 沖永良部島의 傳說을 보면 이 섬은 「시마고오다·시마테에서」라는 神이 建國했다 한다. 最初에 이 섬이 創造된 때는 섬이 固定되지 않아서 마치 배가 물 위에 뜬 것처럼 흔들거렸다. 이 쪽을 밟으면 흔들흔들, 저 쪽을 밟으면 흔들흔들 하여 곤란하므로 神은 섬의 서쪽 끝을 흰 바위로 누르고 동쪽 끝을 검은 바위로 누르니 그제야 섬이 安定되었다. (伊藤清司 外『シンボジウム日本の神話』東京 學生社, 1974. p.16)

또 喜界島의 傳承에 따르면, 작은 섬이 바다로 떠 오는 것을 팔래하던 女人이 發見하고, 놀라서 팔래를 흔들며 소리치자 흘러오던 섬이 그 자리에 멈추어 버렸다 한다.

6) 大林太良 「記紀神話と西南諸島と傳承」 『日本文學研究資料叢書—日本神話』東京 有精堂 1970. pp.38—40.

7) 玄容駿 『濟州島傳說』 瑞文堂 1976. pp. 25—26.

8) 孫晉泰 『朝鮮의 民話』東京 岩崎美術社, 1970. pp.53—54

9) 崔常壽 『韓國民間傳說集』서울 通文館 1958. p.68, p.69, p.116, p.117

섬이 없는 陸地에 가면 本來 섬이 떠내려 왔다는 이야기가 山이 떠내려 온 것으로 變化할 것은 當然한 일이지만, 公州山의 傳說의 경우는 이에서 더 나아가 浮動하는 山에 밧줄을 걸어 끌어당긴다는 觀念의 殘影마저 보인다.

全羅北道 沃溝郡 羅浦面 羅浦里에 있는 公州山은 本來 忠淸道 公州에 있던 것이었다. 옛날 洪水에 밀려서 羅浦里까지 떠내려 온 것이다. 公州 사람들은 이것을 알고 물려와서 沃溝 사람들에게 「우리 산이 여기로 떠내려 왔으니 당신들이 이 산에 대한 稅金을 내어야 한다」고 독촉했다. 沃溝 사람들은 궁지에 몰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는데, 마침 열세살의 少年이 나서서 「당신네의 山이 우리들의 田畠 위에 떠내려 와서 田畠의 面積을 좁혀 놓았으니 오히려 그 배상을 해야 할 것이 아니오」 하고 매들었다. 그러자 公州 사람들은 「그러면 이 산을 우리 고을로 끌어 갈 터이니 내일까지 灰(灰) 동앗줄 삼천발을 꼬아 놓으시오」하고 맞섰다. 재 동앗줄을 꼬아 놓기란 不可能한 일이어서 沃溝 사람들은 다시 수심에 잠겨 있는데, 少年은 마을 사람들에게 짚으로 동앗줄 삼천 발을 꼬게 하고, 다음날 山에 옮겨다 놓아 불을 붙였다. 홀동한 재 동앗줄이 된 것이다. 그리하여 公州 사람들에게 「어서 山을 끌어 가라」고 하니, 公州 사람들은 재 동앗줄을 보고는 그만 모두 달아나 버렸다.¹⁰⁾

이 傳說은 少年의 奇智譚에 重點이 놓여져 있지만, 이 笑話의 話素의 裏面에는 떠 흐르는 山(本來는 섬)에 밧줄을 걸어 당기어 移動시켰다는 觀念이 殘存하고 있는 것임에 틀림 없다. 이것은 日本의 야즈가미스오미즈누神이 섬을 밧줄로 끌어 당겼다는 神話의 모티프와 相通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女人의 妄言에 의한, 浮動하는 섬의 停止, 또는 浮動하는 섬의 牽引 모티프가 韓, 日 兩國에 傳承되고 있는 事實은 原初의인 國土浮動觀을 兩國이 다같이 古代로 부터 가지고 있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라 보아야 한다.

이러한 國土浮動의 觀念은 韓, 日 兩國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渤海의 동쪽 歸墟에다 岱輿, 員嶠, 方壺, 瀛洲, 蓬萊 다섯 山이 다섯 마리 석의 거북에 의하여 떠 받쳐져서 물 위에 떠 있다는 仙境의 이야기를 알고 있다. 列子 湯問篇에 傳하는 이 說話는 浮動하는 섬의 說話에다 神仙思想이 結付된 것이겠는데, 이것은 中國의 原初의 國土浮動觀이 變化된 모습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 國土浮動觀은 우리의 周邊民族에 널리 分布되어 있었던 것이었음을 알게 된다.

國土, 특히 섬의 浮動, 漂流, 牽引 등의 發想이 어떤 文化背景에서 이루어졌을까. 人間의 想像은 全然 體驗의 根據 없이 엉뚱한 것이 나오리라 생각할 수는 없다. 엉뚱한 發想인 듯

10) 崔常壽 前掲書 pp.69-70.

한 것도 實은 따져 보면 體驗의 誇張, 聯想, 投影 등 根據 體驗이 있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떠 가던 섬의 浮動, 漂流, 牽引 등의 發想은 海人族들의 漁撈生活에서 얻은 體驗의 表象들을 國土의 形態에 投影시킨 것이라 推定할 수 있다. 즉 漁船의 浮動, 漂流, 牽引 등의 生活體驗, 또는 漁船 위에서 흔들거리며, 물 위에 뜬 섬을 浮動하는 것처럼 바라다 보는 觀想, 이런 것이 그대로 國土에 投影된 것이라는 것이다. 만일 이런 推定이 맞는 것이라면 이 傳說들은 大陸의 遊牧民文化의 所産이라 할 수는 없다. 南方의 海人族들의 漁撈文化에서 發源했을 것이요, 그것이 中國의 南海岸에서 韓國의 南部를 거쳐 日本의 南西部로 傳播해 간 것이라 推定해서 無理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日本의 國土浮動觀의 開關神話는 韓國을 거쳐 들어간 것이요, 따라서 日本의 古代文化는 韓國을 媒介하여 形成된 면이 적지 않음을 짐작하게 되는 것이다

日本의 開關神話에는 國土浮動觀이 보이는 외에 天地分離神話 要素가 있는 것이 또 하나의 特徵이다. 『古事記』 『日本書記』는 위에서 본 國土浮動의 記述에 이어 이자나기·이자나미 男妹神이 하늘에서 下降하여 國土와 諸神들을 낳아 놓는 이야기로 展開해 가고 있다. 그 이야기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大地가 아직 固定되지 않아 떠돌아다닐때, 天神은 이자나기, 이자나미 男妹神에게 國土를 固定시키도록 下命했다. 男妹神은 天神이 내려 준 창으로 바닷물을 휘젓다가 치켜 들었다. 창 끝에서 방울져 떨어진 소금이 쌓여져 오노꼬로섬이 되었다. 男妹神은 이 섬에 下降하여 기둥을 세우고 넓은 宮殿을 지었다.

그런 후, 男妹神은 서로 相對方의 身體의 特徵을 묻는다. 오빠神은 이루어지다 남은 곳이 한 군데 있다 하고, 누이神은 모자란 곳이 한 군데 있다고 한다. 男妹는 남은 곳과 모자란 곳을 맞대어서 國土를 낳을 것에 합의하고 結婚한다. 그래서 淡路島를 비롯하여 四國, 隱岐, 九州, 壹岐, 對馬, 本州 등 여러 섬을 낳고, 이어서 40位の 여러 神을 낳아 놓았다. 마지막에 이자나미神은 火神을 낳다가 陰部에 火傷을 입고 죽어 黃泉國으로 가 버린다. 그래서 두 神은 離別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몇 가지 다른 性格의 神話로 解釋이 可能하지만, 沼澤喜市の 解釋에 따르면 天地分離神話다. 이자나기神은 天父요, 이자나미神은 地母이며, 두 神이 性的 問答을 한後 結婚하여 國土와 諸神을 낳는 이야기는 天父地母가 抱擁하여 萬物을 生産함을 說話化한 것이다. 그리고 火神을 낳을 때 女神이 죽고 서로 離別하는 이야기는 불을 原因으로 한 天地의 分離를 說話化한 것이라는 것이다.¹¹⁾

11) 沼澤喜市「南方系文化としての神話」『國文學解釋と鑑賞』36卷 11號 東京 p.16 同氏「天地分るる神話の文化史的背景」『現代のエスプリ. 神話』東京 至文堂 1966. p.49-62.

이 神話を 天地分離神話라고 볼 때, 이 이야기와 比較할 수 있는 韓國의 神話は 文獻神話에는 없고, 現在 巫儀에서 歌唱되는 巫歌에서 發見된다.

太初에 天地는 混合되어 하늘과 땅이 서로 맞붙고 암흑으로 휩쌓여 있었다. 이 混合 天地에 开辟의 기운이 돌기 시작하여 甲子年 甲子月 甲子日 甲子時에 하늘의 머리가 子方으로 열리고, 乙丑年 乙丑月 乙丑日 乙丑時에 땅의 머리가 丑方으로 열려 하늘과 땅 사이는 시루떡의 층계처럼 금이 생겨 벌어졌다. 그래서 하늘로는 청이슬이 내리고 땅으로는 흑이슬(또는 물이슬)이 솟아서 서로 合水되어 陰陽相通으로 만물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먼저 별이 생겨나고 아직 太陽이 없을 때, 천황닭(天皇鷄)이 목을 들고 지황닭(地皇鷄)이 날개를 치고 인황닭(人皇鷄)이 꼬리를 치니 甲乙東方에서 언동이 트기 시작했다. 이 때 하늘의 玉皇上帝 天地王이 해도 돌 달도 돌을 내보내어 天地는 활짝 开辟이 되었다.

어느 날 친지왕은 마음씨 고약한 수명장자를 벌 주기 위하여 地上으로 내려와 총명부인과 배필을 낳았다. 며칠 간의 同寢 후, 친지왕은 하늘로 올라가고, 총명부인은 대별왕, 소별왕 兄弟를 낳았다. 兄弟는 자라나서 아버지가 證物로 남기고 간 박씨를 심었다. 박씨는 움이 돌아 하늘로 줄이 떨어 갔다. 兄弟는 그 박줄을 타서 하늘에 올라가 아버지를 만났다. 아버지는 뒤인 대별왕에게 이승을, 아우인 소별왕에게 저승을 차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욕심이 센 소별왕은 이승을 차지하고자 해서 兄에게 서로 競爭을 하여 이기는 자가 이승을 차지하자고 提案했다. 그래서 먼저 수수께끼로써 다투어서 지자, 다음은 꽃가꾸기 내기를 하여 속임수로 이겨서 이승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를 알면서도 양보한 兄은, 이승은 매우 秩序가 혼란한 世界가 될 것이라고 하며 저승으로 가 버렸다. 소별왕은 이승에 오고 보니, 果然 해도 돌이 뜨고 달도 돌이 뜨고, 草木이나 禽獸가 말을 하고, 人間에 도둑·不和·姦淫이 盛行하고, 사람 불러 귀신이 대답하고 귀신 불러 사람이 대답하는 판이었다. 할 수 없이 소별왕은 兄에게 이 混亂을 바로잡아 주도록 부탁했다. 兄은 千斤활에 千斤살을 가지고 해 하나 달 하나 석을 쏘아 바다에 던져 하나 석만 남기고, 松皮 가루 닛 말 닛 되를 뿌려서 禽獸 草木의 말을 못하게 하고, 귀신과 人間은 저울로 달아서 百斤이 넘는 것은 人間으로, 못한 것은 귀신으로 보내어 人間과 귀신을 구별지어 주었다. 그러나 자갈한 秩序는 바로잡아 주지 않았기 때문에 人間의 不和·도둑·姦淫 등 罪惡은 오늘날도 남아 있는 것이다.¹²⁾

이 神話は 濟州島의 巫儀, 큰굿의 맨 처음의 祭次인 초감제에서 불려지는 것이다. 초감제란 巫儀의 첫 머리에 모든 神들을 一齊히 청해 앉히고 祈願하는 儀禮이다. 神을 청해 들일려면 언제 어디서 무엇 때문에 굿을 하여 청한다는 緣由를 神에게 告해야 하기 때문에, 이 「언제 어디서」를 說明하기 위하여 이야기는 天地開闢으로 거슬러 올라가 歷史的 地理的 形成을 說明해 내려오게 되는 것이다. 이 過程에서 이 神話は 歌唱된다.

이와 같은 巫俗의 開闢神話は 濟州島에서 뿐 아니라, 咸鏡南道에서도, 서울에서도 採集되

12) 玄容駿 「濟州島神話」 瑞文堂 1976 pp.11-21.

고 있다. 咸南의 것은 孫晉泰가 <創世歌>라는 이름으로,¹³⁾ 任哲宰氏가 <센곳>이라는 이름으로 採錄하여 놓았는데,¹⁴⁾ 主人公의 이름이 釋迦님·彌勒님으로 되어 있음이 다를 뿐, 이야기의 內容은 濟川島에 것과 비슷하다. 서울에 것은 秋葉蔭에 의해 <시루말>이란 題目으로 採錄되어 있는데, 이것도 또한 天下宮堂七星이 地下宮에 내려와 梅花夫人과 同寢하고 <선문이> <후문이>兄弟를 낳았다는 식으로 神名이 다를 뿐 說話의 類型은 같다.¹⁵⁾

이런 開關神話가 北部인 咸南에서부터 서울을 거쳐 最南端인 濟州島에서까지 採集되고 있다는 점, 특히 그것이 保守性이 짙은 巫歌로서 傳承되고 있다는 점으로 보아 이 類話가 古代로부터 韓半島 全域에 分布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神話는 太初 天地가 相接하고 混沌되어 있던 狀態가 점차 分離됨에 따라 世界의 秩序가 整理되어 간 過程을 說明하고 있다. 하늘과 땅이 서로 맞붙어 한 덩어리가 되어 있었는데는 暗黑으로 휩싸인 天地混合의 狀態를 말하는 것이요, 天父地母의 抱擁의 狀態를 말하는 것이다. 相接하고 있는 天地에서 하늘로는 청이슬이 내리고 땅으로는 흑이슬이 솟아나 서로 合水되어 陰陽相通으로 萬物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은 男女의 同寢을 天地에 投影한 것으로서 天父地母가 抱擁하여 萬物을 生殖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그런 후 天地가 開關이 되었다는 것은 抱擁했던 天父地母의 分離, 곧 天地分離를 말해 주는 것이다.

이 神話는 처음에 天地의 相接과 分離過程을 抽象的으로 說明하고 이어서 천지왕과 총명부인을 登場시켜 그것을 說話로서 具象化하고 있다. 즉, 천지왕이 地上에 下降하여 총명부인과 同寢하여 大별왕·소별왕 兄弟를 낳는 插話는 天父地母의 抱擁과 萬物의 生殖을 具體的으로 說明한 것이다. 그러니 천지왕은 天父이며 총명부인은 地母다. 두 아들을 낳은 천지왕이 총명부인과 이별하여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抱擁했던 天父의 退去를 意味하는 것으로서 한 덩어리가 되었던 天地가 시루떡의 층계처럼 금이 나면서 分離해 갔다는 表象을 說話化해 놓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天地分離神話다.

그러면 相接해 있던 天地가 分離한 原因은 무엇인가. 그것은 위의 神話를 다시 한번 吟味해 봄으로써 밝혀진다. 이야기는 天地에서 發하는 液體의 合水에 의해서 별이 생기고 아직 太陽이 없을 때, 「천황닭이 목을 들고 지황닭이 날개를 치고 인황닭이 꼬리를 치니 먼동이 트기 시작해서 暗黑이 밝아 갔다」고 되어 있다. 닭이 목을 들고 날개를 치고 꼬리를 쳤다는 말은 닭이 우는 모습을 表現한 것이다. 이른 새벽 닭이 날개를 치면서 하늘을 향해 목을 들어 올린 동이 터 오고, 太陽이 떠 오르고 世界는 光明으로 變해 간다. 새벽의 닭의 울음 소리가 太陽을 誘引해 내고, 太陽의 昇天으로 暗黑에 휩싸였던 混沌의 世界가 光明의 秩序世

13) 孫晉泰『朝鮮神歌遺篇』東京 郷土研究社, 1930. pp.1-13

14) 任哲宰『關北地方巫歌(追加)』文教部, 1966. pp.1-18.

15) 赤松智城, 秋葉蔭『朝鮮巫俗の研究』上卷 大阪屋號書店 1937. pp.128-132.

界로 變하는 日常的인 새벽의 體驗, 이것을, 이 神話는 原初의 宇宙開闢에 投影하고 있다. 「甲子年 甲子月 甲子日 甲子時」는 宇宙開闢의 最初의 時間을 말하고, 이 最初의 時間에 最初의 光明이 나타남으로써 原初的인 暗黑에 휩싸여 相接하고 있던 天地는 分離되는 것이다. 結局 太陽의 出現에 의해서 出現한 太陽, 이것에 의해서 天地는 分離되었는 이야기가 이 神話다.

太陽은 불과 直結된다. 天地分離의 原因인 太陽이 불로 바뀌어지는 것은 自然스러운 理致다. 日本神話에 있어서 天父 이자나기와 地母 이자나미가 火神에 의해서 分離되었다는 觀想은 太陽의 出現에 의해서 天地가 分離했다는 韓國神話의 그것과 結局은 同一한 것임을 여기에서 理解하게 되는 것이다.

이들 兩國의 神話에는 다른 점도 없지 않다. 韓國의 神話에는 天地의 混沌現象으로서 複數의 해와 달, 動植物의 發話, 鬼神과 人間의 無分別, 人間世界의 不和·竊盜·姦淫 등 社會惡을 들고 있고, 이 混沌現象의 整理가 소벌왕의 詭計에 의한 現世 統治 때문에 未盡되어 社會惡은 現今도 尙存한다고 說明하고 있다. 日本의 神話에는 이런 要素가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兩國에 있어서의 神話의 編纂意圖에서 생긴 結果라 보인다. 日本의 『古事記』 『日本書記』의 神話들은 國土의 完成, 皇族의 統治 등 國家的 政治的 面에 重點을 두어 編纂했고, 韓國의 巫歌神話는 天體의 怪異, 人文現象의 混雜, 特히 人間의 罪惡 등 宗教的 倫理的 面에 重點을 두어 巫敎의 經典으로서 傳承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日本의 境遇에도 動植物의 發話, 複數의 太陽 등의 모티프가 다른 說話에 分散되어 傳하고 있음을 본다. 가령, 『常陸風土記』의 「天地의 始初, 草木이 다 말을 할 때 (天地のはじめ, 草木言語ひしとき)」라든지, 『日本書記』 欽明天皇條의 「天地剖判時 草木이 말을 할 때 (天地剖判の代, 草木言語ひしとき)」 등의 表現은 動植物이 말을 했다는 原初的 觀念을 말해 주는 것이고, 垂仁天皇 때 아홉 개의 太陽이 同時에 出現하였는데 그중 여덟 개를 쏘아 버려뜨렸다는 記錄¹⁶⁾은 天地分離 當時의 原初的 天體의 混雜相을 表現한 片鱗이라 보인다. 이런 점을 綜合하여 생각하면 兩國이 古代에 同一類語를 所有하고 있었음을 알게 된다.

兩民族이 同一 類型의 神話を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文化的인 密接한 關係에 있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 되는데, 나머지 問題는 兩國間에 그 授受關係가 어떠한지나 하는 것이 있다. 天地分離神話는 아직 이 問題에 解答할 만큼 研究가 進展되어 있지 않다. 現在 알려져 있는 天地分離神話의 主된 類型은 女人 特히 딸이나 其他 穀類를 찢는 女人에 의해서 分離되는 型, 太陽 또는 불에 의해서 分離되는 型, 나무 또는 巨人의 侮弄을 받아 分離되는 型 등 많은 타입이 있다.¹⁷⁾ Schmidt는 이 神話의 基盤을 東南亞의 未開農耕民文化에 求하고 있고¹⁸⁾ Baumann는 古代 오리엔트文明 地域에서 起源하여 傳播해 나간 것이라 하고

16) 中山太郎 「太陽を射落す話」 『民族點描』 京都 人文書院 1937. p.45-46.

17) 沼澤喜市 「天地分るる神話の文化史的背景」 『現代のエスプリ 神話』 東京 至文堂 1966 pp.49-62

18) Schmidt Wilhelm 山田隆治譯 『母權』 東京, 平凡社, 1962 pp.44-46.

있다.¹⁹⁾ 現在의 段階로서는 위의 여러 類型이 各各 다른 文化背景의 所産인지, 또는 同一 文化背景에서 所産하여 分化한 것인지도 斷定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그 傳播經路를 速斷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만일 이 神話가 古代 오리엔트文明 地域의 所産이라 한다면 그것이 日本에까지 傳播하는 데 韓國을 仲介하여 건너갔으리라는 것은 생각하기에 어렵지 않다.

I

開關神話에 이어 兩國의 神話에 比較할 수 있는 것은 生死의 神話다. 日本의 境遇, 開關神話의 主人公으로서의 이자나기·이자나미神은 火神을 낳고 死別한 후, 生의 神과 死의 神으로 그 性格이 一變하여 이야기는 生死起源의 說明으로 바뀌어진다. 內容은 다음과 같다.

이자나미神은 火神을 낳을 때, 陰部에 火傷을 입고 죽어 黃泉國으로 갔다. 愛妻를 잃은 男便. 이자나기神은 화가 나서 火神의 모가지를 베었다. 끊긴 火神의 死體에서 여러 神들이 태어난다.

그런 후, 이자나기神은 亡妻를 만나 보려고 黃泉國을 찾아가고, 아직도 國土가 完成되지 않았으니 돌아오도록 妻에게 부탁했다. 妻 이자나미神은 「一旦 黃泉國의 飲食을 먹은 후이니 돌아가기는 어렵다. 그러나 한번 의논해 보겠으니 기다려 주되, 내 모습을 들여다보지 말도록」 당부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기다리다 지친 이자나기神은 머리빗에 불을 붙여 앞을 밝히고 안을 들여다보니, 이자나미神의 身體에는 구더기가 우글거리고 있고, 우르릉 우르릉 소리를 내면서 많은 雷神을 낳고 있었다. 이자나미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줬다고 화를 내면서 黃泉國의 醜女들에게 이자나기神을 쫓아가 잡으라고 했다. 이자나기神은 도망가면서 머리를 장식했던 다리(靈)를 뽑아 던지고, 이어서 머리빗을 꺾어 던지니 이것이 포도가 되고 竹筍이 되었다. 醜女들이 이것을 따 먹는 사이에 이자나기神은 저만큼 도망간다. 이자나미神은 다시 雷神과 黃泉의 軍士들을 보내어 쫓으니, 이자나기神은 북송아를 던져서 擊退했다.

段後로 이자나미神이 뒤쫓아 오자, 이자나기神은 黃泉과의 境界 길을 巨岩으로 막고 서로 對決하러 섰다. 이자나미神은 「이렇게 한다면 당신 나라의 사람을 하루 千名씩 죽이겠다.」고 말한다. 이 말에 이자나기神은 「당신이 그런다면 나는 하루 千 五百名씩을 낳겠다.」고 응수하여 두 神은 각각 이승과 저승으로 갈라섰다. 그래서 사람은 하루 千名이 죽고 또 千 五百名이 태어나는 것이며, 이런 일로 해서 이자나미神을 요모즈오오가미(黃泉大神)라 한다.

이 이야기는, 前半은 물건을 던지면서 逃走하는 이야기, 즉 〈呪的逃走說話〉로 되어 있고, 後半은 生과 死의 起源을 說明하는 說話로 되어 있다. 이야기의 焦點이 後半의 生死起源 說明에 두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따라서 이제까지의 이자나기·이자나미神의 天父·地母的 性格은 完全히 없어지고, 生의 神과 死의 神으로 一變하고 있는 것이다. 한 쪽의 神은

19) 伊藤清司外『シンボジウム 日本神話 1』東京, 學生社, 1974. p.173

저世上에 住居를 정해 살면서 하루 千名의 生命을 죽이겠다고 主張하고, 또 한 쪽의 神은 이世上을 管掌하면서 하루 千 五百名을 出産하겠다고 主張한다. 이 言爭에서 이승의 神이 이겼기 때문에 人口는 增加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神話는 幽明 兩界의 神이 人間의 生과 死를 管掌하고, 言爭의 競爭方式에 의해서 그 職能의 優劣을 決定하는데, 現世의 生의 神이 勝利한다는 이야기인 것이다.

이 이야기에는 저승의 神은 死를 管掌하지만 競爭에 지고, 이승의 神은 生을 차지하는데 競爭에 이긴다는 構造가 보인다. 이와 같은 構造는 위에서 例示한 韓國의 開闢神話에도 보인다. 이승을 차지한 소병왕이 저승의 神인 대별왕과의 꽃 가꾸기 競爭에서 勝利를 確保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더 正確하게 對應이 되는 韓國의 神話를 든다면 濟州島의 叙事歌인 産神神話가 될 것이다.

東海龍王의 딸남아가가 여러 가지 罪를 지으므로 龍王은 딸을 죽이려 했다. 어머니는 딸을 삼승할망(産神)으로 인간 세상에 보내어 목숨을 살리려고 해서 石函에 담아 띄워 버릴것을 龍王에게 提案했다. 곧 石函이 만들어지고 띄워 버리게 되었다. 어머니는 급히 딸에게 胞胎를 시키는 方法을 가르쳐 주었지만, 解産시키는 方法을 미처 말해 주기 전에 딸은 바다에 띄워 버려지고 말았다.

石函은 人間世界에 漂着되고, 작식이 없는 임박사에게 發見되어 열려졌다. 임박사는 매우 기뻐해서 胞胎를 주도록 부탁했다. 東海龍王의 딸은 어머니가 가르쳐 준대로 임박사의 妻에게 胞胎를 주었다. 아기는 배 속에서 점점 커 갔지만 分娩시키는 方法을 모른 것이 낭패였다. 열 달이 지나고 열두 달이 넘어가니, 딸은 급한 김에 姪婦의 겨드랑이를 꿰어서 아기를 꺼내려 했다. 아기와 어머니가 모두 죽게 된 것이다.

임박사는 일운함을 玉皇上帝에게 呼訴했다. 玉皇上帝는 명진국따님아기에게 胞胎를 주고 解産시키는 方法을 가르쳐 産神으로 내려 보냈다. 두 處女는 途中에서 만나 서로 産神이 되려고 다투기 시작했으나 한이 없었으므로 玉皇上帝한테 가서 判決을 받기로 했다. 玉皇上帝는 두 處女를 보고, 꽃 가꾸기 내기를 해서 이기는 자에게 産神의 資格을 주겠다고 했다. 두 處女는 각각 모래밭에 꽃씨를 심었다. 명진국 따님아기의 꽃은 사만 오천 육백 가지로 번성하여 훌륭한 꽃이 피고 東海龍王 따님아기의 꽃은 줄기도 하나 가지도 하나로 이우는 꽃이 피었다. 玉皇上帝는 명진국 따님아기에게 삼승할망(産神)을 任命하여 人間世上에 가서 胞胎를 주도록 하고, 東海龍王 따님아기에게는 저승에 가서 아이의 死靈을 차지하는 구삼승신이 되라고 했다. 競爭에 진 東海龍王 따님아기는 화가 나서 명진국 따님아기의 꽃을 하나 오독독 꺾어 가졌다. 명진국 따님아기가 「왜 남의 꽃가지를 꺾어 갖느냐?」 하니 「내가 胞胎를 주어 아기가 태어나면 驚風 驚勢 등 병을 주어 잡아 가겠노라」고 한다. 「네 맘대로 못한다. 좋은 마음 가져라.」고 하며 명진국 따님아기는 이승으로 내려오고, 東海龍王 따님아기는 저승으로 향했다. 이래서 명진국 따님아기는 삼승할망(産神)이 되어 西天꽃밭의 生佛꽃 還生꽃을 차지하여 이 꽃을 가지고 분주히 人間에게 胞胎를 주고, 東海龍王 따님아기는 아이에게 병을 주어 잡아가서 저승에서 그 死靈을 管掌하는 神이 되었다. 그래서 명진국 따님아기를 삼

승할망, 生佛할망, 인간할망 등이라 부르고, 東海龍王 따님아기를 구삼승할망, 저승할망 등이라 부른다.²⁰⁾

이 神話는 꽃 가꾸기 競爭에서 이긴 神이 産神 곧 生의 神이 되고, 진 者가 死의 神이 되었다는 이야기다. 生의 神은 이승의 神이요, 死의 神은 저승의 神이다. 前者는 이승에서 人間에게 아이의 生命을 賦與하여 分娩시켜 키워 주고, 後者는 저승에 살면서 아이의 生命을 잡아간다. 結局, 幽明 兩界의 神이 生과 死를 管掌하는데, 競爭에 의해 그 職能의 優劣를 決定하여 現世의 生의 神이 勝利했다는 것이다. 「生의 神=이승의 神=競爭의 勝利」 「死의 神=저승의 神=競爭의 敗北」, 이러한 「生·死, 이승·저승, 勝·敗」의 二項 對立의 構造가 日本의 것과 一致하며 生의 神의 技能이 優秀하므로 人間의 數는 增加한다는 이야기의 焦點이 같다.

그런데, 韓國의 産神 神話는 日本의 이자나기·이자나미神話와 相違한 點도 없지 않다. 後者는 보아서는 안될 것을 보는 窺察禁忌모티프와 물건을 던지며 도망가는 呪的 逃走모티프가 있지만 前者에는 이것이 없다. 이런 差異는, 韓國의 境遇는 純粹 生死神話로서 傳承되고 있는데 비해 日本의 경우는 黃泉國訪問神話와 生死神話가 結合되어 文字 定着이 된 때문이라 보인다. 또 競爭方式에 있어서도 日本神話의 경우는 對話에 의한 言語이 그 核心이 되고 있고, 韓國의 것은 꽃 가꾸기가 中核이 되고 있는 점도 다른 듯이 보인다. 그러나 위의 開關神話에서도 본 바와 같이 韓國의 巫歌神話에서의 神들의 競爭方式은 꽃 가꾸기내거 뿐 아니라 수수께끼로서 그 優劣를 決定하는 것도 主要한 方式으로 併用되고 있다. 이자나기·이자나미神의 言語에 의한 競爭도 韓國에 있어서의 수수께끼에 의한 競爭方式과 같은 性質의 것이라 보인다. 따라서 兩國의 生·死의 神의 競爭方式은 全然 다른 것이라 볼 수 없다. 이런 점에서 兩國의 이들 神話는 같은 根源에서 나온 同一 系統의 神話라 보아 無理가 없으리라 생각된다.

大林太良氏는 이 이자나기·이자나미神話를 對立型의 死의 起源神話라 보고 그 事例를 널리 調査하여 日本의 것이 北아세아, 아메리카 神話群에 近似함을 밝히고 그 起源을 北아세아에 求했다. 그러면서 日本에의 傳播 經路는 北方으로부터의 傳播은 생각하지 않고 中國 南部쪽으로부터의 流入을 推定했다. 그런데 여기엔 大林氏 自身도 認定하고 있듯이 中國에 이들 類型의 神話 事例가 없다는 것이 큰 弱點이다. 氏는 이를 自認하던서도 日本의 이 神話에 採集狩獵民文化的 色彩가 없음을 注視하고, 또 이 類話가 北아세아 뿐 아니라 東南亞나 오세아니아에도 分希되어 있음으로 그 中間 位置인 中國에도 過去에 存在했을 것이라는 想定 下에 이런 推定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만일 氏가 韓國에 이 類話가 存在함을 알았다

20) 玄容駿『濟州島神話』瑞文堂, 1976. pp.25-36.

면 그 推定은 달랐을 것이다. 事例도 없는 中國 南部의 仲介地域을 궁색하게 생각할 것 없이 北方에서 韓國을 거쳐 日本으로 들어가는 經路를 생각하는 것이 아주 自然스럽고 順理的 이리라 생각된다.

V

다음은 建國神話의 比較로 옮긴다. 韓·日神話의 比較研究에 있어 現在까지 어느 程度 業績이 쌓여진 分野는 文獻神話에 있어서의 建國神話다. 兩國의 神話에 있어서 國王 乃至 支配者의 出現形式이나 建國의 樣相이 顯著하게 類似함이 얼마간 發見된 것이다.

韓國神話에 보이는 國祖 乃至 支配者의 主된 出現形式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은 6個型으로 整理할 수 있다. 神話에 따라서는 어느 1個形式만을 取하고 있는 것이 있지만, 많은 神話가 그 몇개를 複合한 形式을 取하고 있다.

- A 天上으로부터의 降臨
- B 海上의 먼 나라로부터. 來訪
- C 地中으로부터의 湧出
- D 卵生
- E 日光感精出生
- F 獸祖 또는 動物로부터의 變身

이들 6個型이 어떻게 複合되어 가는가를 보기 위하여 主要 建國神話의 要旨를 보기로 한다.

檀君 : 天神 桓因의 庶子 桓雄이 父神의 命을 받아 天符印 三個를 가지고 風伯·雨師·雲師 등 諸神을 거느려 太伯山上의 檀樹下에 下降하여 神市를 베풀었다. 이 때 곰이 마늘과 썩을 먹어 女人으로 化身하고 桓雄과 結婚하여 檀君을 낳고, 檀君이 나라를 세워 國號를 朝鮮이라 했다.²¹⁾

解慕漱 : 天帝가 訖升骨城에 五龍車를 타고 내려와서 都邑을 정하여 王이 되고 國號를 北扶餘라 하고 스스로 解慕漱라 이름했다. 아들을 낳아 이름을 夫婁라 했는데, 夫婁는 後에 上帝의 命으로 都邑을 東扶餘에 옮기고 東明帝가 北扶餘를 이어 받았다. 그후 東明帝는 都邑을 卒本州에 정하여 卒本扶餘를 세웠다. 곧 高句麗의 始祖다.²²⁾

朱蒙 : 東扶餘의 金蛙王이 河伯의 딸 柳花를 宮中에 데려다가 방안에 幽閉해 두었다. 柳花는 窓으로 들어오는 日光을 받아 妊娠하고 닳되드리만 한 大卵을 낳았다. 이 알에서 男兒가 誕生하니 이름을 朱蒙이라 했다. 朱蒙은 卒本으로 내려와서 이미 나라를 열고 있었던 沸流王 松讓으로부터 強制로 나라를 移讓 받아 高句麗를 세웠다.²³⁾

21) 『三國遺事』卷一 古朝鮮條

22) 『三國遺事』卷一 北扶餘條

23) 『東國李相國集』

朴赫居世 : 各各 하늘에서 山上에 下降한 六村의 始祖들이 모여서 有德한 이를 찾아 君主로 모시고 나라를 세우려고 의논했다. 이 때 楊山의 기슭에 異氣가 電光과 같이 땅에 비치더니 白馬 한 마리가 쫓아앉아 절하는 모습이 보였다. 찾아가 보니 붉은 알 하나가 있고 말은 길게 울면서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 이 알 속에서 한 童子가 태어나니 이름을 赫居世라 하고 임금으로 推戴하여 新羅를 세웠다.²⁴⁾

首露 : 駕洛國의 首長들과 衆人들이 龜旨峯에 모여 迎神의 祭儀를 行하니, 하늘에서 紫色 줄이 내려와 닿았다. 줄 끝을 찾아가 보니 紅幅에 金合子가 싸져 있었다. 그것을 여니 黃金알이 여섯 개 있고, 그 알 속에서 童子가 태어났다, 그 중의 하나가 首露王이 되고, 나머지 五人은 각각 五伽耶의 임금이 되었다.

首露王은 西南쪽 바다로 떠 온 阿踰陀國의 公主 許黃玉을 맞이하여 王后로 삼았다. 許王后는 上帝의 命을 따라 錦繡綾羅, 衣裳疋段, 金銀珠玉 등을 가지고 붉은 빛의 돛과 붉은 旗를 단 배를 타고 온 것이다.²⁵⁾

昔脫解 : 倭의 東北 一千리에 있는 龍城國의 王 舍達婆가 積女國의 王女를 맞이하여 妃를 삼고 大卵을 하나 낳았다. 王은 사람으로서 알을 낳음은 不吉한 徵兆라 하여 罍 속에 이 알을 넣고 七寶, 奴婢와 함께 배에 실어 바다에 띄워 버렸다. 배는 赤龍의 護衛를 받아 新羅에 漂着하고, 알 속에서 脫解가 태어났다. 脫解는 新羅의 大埔 벼슬에 올라 國政을 補佐하다가 드디어 第4代 임금이 되었다.²⁶⁾

三乙那 : 地中(毛興穴)에서 三神人이 湧出했다. 長을 良乙那, 次를 高乙那 季를 夫乙那를 했다. 三人은 游獵을 하며 皮衣肉食하고 있었다. 어느 날 東海邊에 세 處女가 石函에 담겨 駒積과 五穀의 씨를 가지고 漂着해 왔다. 三人은 이들을 맞아 分娶하고, 비로소 五穀을 뿌리고 駒積을 쳐서 날로 富庶를 이루었다.²⁷⁾

위의 要旨들에서 6個의 支配者 出現形式의 複合樣相을 理解했을 것이다. 즉 檀君神話의 桓雄은 A, 熊女는 F, 解慕敎는 A, 朱蒙은 D와 E, 赫居世는 A와 D, 駕洛國 建國神話의 首露는 A와 D, 許王后는 B, 脫解는 B와 D, 濟州島神話의 三乙那是 C, 그 配位는 B와 같은 形式을 取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B의 바다로부터의 漂着形式은 神人이 罍 또는 石函 등 箱子型의 容器에 담겨서 漂着해 오는 것이 特徵으로 되어 있는데, 이 箱子의 要素는 天降 모티프에도 複合이 되어서, 天降하는 駕洛國의 首露王이나 新羅의 金閼智 등도 金合子 또는 罍 속에 담

24) 『三國遺事』 卷一 新羅始祖 赫居世王條

25) 『三國遺事』 卷二 駕洛國記

26) 『三國遺事』 卷一 第四脫解王條 및 『三國史記』 卷第一 新羅本紀 第一

2) 『高麗史』

겨서 降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들 出現形式을 좀 細密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注目할 만한 점을 깨닫게 된다.

첫째, 支配者의 出自은 하늘로부터의 降臨과 바다로부터의 來訪이 가장 많고 顯著하며, 卵生이나 日光感情 등은 그 出現의 方式에 不過한 점.

둘째, 하늘로부터의 降臨은 全國的인 分布形式이지만 北部地方의 것일수록 純粹한 型으로 되어 있고, 南部地方의 것들은 卵生이나 箱舟의 要素가 習合되어 있는 점, 또 바다로부터의 來訪形式은 南部地方에 顯著하고, 地中으로부터 湧出形式은 最南端의 濟州島에만 있는 점.

셋째, 하늘로부터 降臨한 者는 主로 國祖(建國者)가 되고, 바다로부터 來訪한 者는 王后, 後世의 王 또는 官吏로서 建國乃至 國政을 補佐하는 役이 되고 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의 降臨하는 者는 日本의 「三種의 神器」에 該當하는 天符印 三個라든가, 「五件緒」에 該當하는 風伯·雨師·雲師 등 統治權을 保證하는 寶器와 職能神을 隨伴하여 天神의 命에 따라 降臨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에 대해 바다로부터 來訪하는 者는 五穀·駒積·七寶·金銀珠玉·綿繡綾羅 등 國家의 建設이나 人間의 生活에 必要한 貴重한 物資를 가지고 建國을 돕기 위해 찾아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이 特徵이다.

이와 같은 韓國의 支配者起源神話를 日本의 古典神話와 比較할 때 顯著하게 類似한 것은 天上으로부터의 降臨型과 海洋으로부터의 來訪型이다. 日光感情이나 地中湧出型神話도 日本에 없지는 않으나 이것들은 主로 對馬, 九州, 沖繩 등 南西部에 民間神話로서 傳承되고 있고,²⁸⁾ 文獻神話로서 採擇되지가 않았다. 이들 類型이 韓·日兩國 모두 南部에 分布되고 있는 점 등은 興味 있는 對比가 되겠으나, 여기서는 古典神話로 그 範圍를 줄이기로 한다.

28) 日光感情型神話로서 適切한 例는 對馬島의 天道傳說을 들 수 있고, 地中湧出型神話의 例는 沖繩 八重山の 石垣島의 이야기를 들 수 있다.

對馬島의 天道傳說은 이 섬의 聖山인 天道山의 神의 由來를 說明하는 傳說인데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對馬 豆酸郡 內院村에 照日之榮라는 이가 딸을 하나 낳았다. 이 딸이 日輪之光을 感하여 妊娠하고 아들을 낳았다. 成長함에 따라 聰明俊慧하고 智覺出群하여 僧(僧)이 되고 後에 巫祝의 術을 얻었다. 이가 天道이다云云」(三品彰英「對馬의 天童傳說」『日鮮神話傳說の研究』 平凡社 1972 pp.370-371). 또 一說은 다음과 같다.

「天道法師者 天武天皇白鳳二年癸酉 生於對馬州豆酸郡內院村 馬山之澤上 其母一朝向日尿溺 受日輪光感有娠矣 至其誕辰 則五色瑞雲飄颻而四面 垂布其現 以有此天瑞 故小字謂天道童子云云」(城田吉六『豆酸一傳承と習俗』對馬郷土研究會 1973 p.57)

한편 八重山の 石垣島의 地中湧出神話는 다음과 같다.

「야망神이 日神의 命에 따라 하늘의 七色の 다리(橋)에서 캐어낸 土石을 大海에 던지고 槍으로 이것을 휘저어 섬을 만들었다. 그리고 人種을 내리우니 地中의 구멍으로부터 男女가 出生했다. 神은 그 男女를 못 가에 세우고 각각 다른 方向으로 못을 돌게 했다. 못을 돌다가 男女는 서로 만나서 抱擁하고 結婚하여 八重山の 子孫은 繁昌했다 한다.」(大林太良「琉球神話と周圍諸民族神話との比較」『沖繩の民族學的研究』東京 民族學振興會 1973 p.332)

먼저 天上으로부터의 降臨型神話부터 보면 그 代表的인 것은 所謂「天孫降臨神話」가 된다. 그 內容은 天神 아까무스비 (別名 高木神)의 命에 의하여 그의 손주인 히코호노니니기가 아케노고야비, 후도다마, 아메노우즈데, 이시고리도에, 다마노야 등 다섯 神을, 이른 바 五伴緒라 하여 거느리고, 구슬과 거울과 칼 등 三神器를 携帶하여 구름을 헤치고 다카지호(高千穂)의 구시후루峯(또는 소호리峯)에 降臨하여 나라를 세웠다는 것이다.²⁹⁾ 이 神話와 韓國의 文獻神話와의 比較는 岡正雄, 三品彰英, 大林太良 등 諸氏에 의해 詳細하게 行해졌다.³⁰⁾ 거기에 指摘된 類似點을 要約하면 兩國의 神話는 天神의 命에 의하여 天孫이 山上에 降臨한다는 主旨 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細部事項에 이르기까지 類似하다.

① 天神 다카무스비의 別名 高木神과 檀君이 다 같이 나무와 關聯된 名稱으로 되어 있는 점.

② 天孫의 降臨地가 다카지호(高千穂)의 구시후루峯 또는 소호리峯으로 되어 있는데, 구시후루峯은 駕洛國 建國神話의 首露王이 降臨한 龜旨峯과 類似하고, 소호리는 韓國語의 「都」를 뜻하는말「徐伐」「蘇伐」「서울」과 類似하다.

③ 구슬, 거울, 칼 등 日本의 三種의 神器는 檀君神話의 天符印 三個와 類似하다.

④ 天孫이 降臨할 때 隨伴한 五伴緒(이즈도모노오)는 高句麗의 五部族과 關係가 깊다.³¹⁾

以上과 같은 類似點에다 天神의 山上 樹林에의 降臨, 社會組織의 五組織 등 알타이系 遊牧民文化的 要素가 짙은 점을 생각하면 이 類型의 神話는 韓半島를 거쳐 內陸아시아의 알타이系 遊牧民文化에 이어지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³²⁾

兩神話에는 差異點도 적지 않으나, 위와 같은 細部에 걸친 類似는 日本의 所謂 天降降臨神話가 우리와 同系의 것이고 따라서 그 支配者의 文化가 韓半島에서 건너갔음을 擬心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다음, 바다로부터의 來訪型神話로서 代表的인 것을 들면 所謂 스쿠나히코나神話가 될 것이다. 그 이야기는 이러하다. 이즈모(出雲)나라에 오오무니누시라는 神이 장차 나라를 열려고 할 때, 어느 날 바다 물결 위로 羅摩船(가가미의 배)를 타고 나방의 가죽을 옷으로 해입고 찾아온 小童神이 있었다. 알고 보니 이 神은 天神 다카무스비의 아들로서 父神의 命에 의하여 오오무니누시神과 兄弟가 되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찾아온 것이었다. 이 스쿠나히코나

29) 『古事記』 『日本書紀』의 神話를 綜合 要約한 것.

30) 石田英一郎 外 『日本民族の起源』 東京 平凡社 1958 pp.43-68. 三品彰英 『日鮮神話傳説の研究』 平凡社 1972. 大林太良 『日本神話の起源』 東京 角川書店 1961 pp.213-220

31) 高句麗는 消奴部, 絶奴部, 順奴部, 灌奴部, 桂婁部 등 五部族으로 나누어져 있었고, 百濟도 上部, 前部, 中部, 下部, 後部로 나누어져 있다고 하는데, 이 五部組織體系는 元來 遊牧民의 軍隊組織體系였다 한다. (石田英一郎外 前掲書 pp.244-246)

32) 石田英一郎外 前掲書 參照

神은 곧 오오푸니누시神을 도와서 天下를 經營하고 사람이나 家畜을 위한 病治療法을 만들고 새, 짐승, 昆虫의 災害를 막는 呪法을 定하고 하여 國家의 基礎를 든든히 한 후, 常世國(도쿄요나라)으로 갔다.

本林太良氏は 이 小靈神을 해마다 一定期間에 찾아와 福利를 베풀고 다시 原鄉으로 돌아가는 來訪神(곧 まれびと)이라 하고, 이 神話의 文化的 背景을 一種의 農耕民文化 特別 穀物栽培民文化라고 했다.³³⁾ 이 神話는 韓國의 來訪型神話와 比較할 때 小靈神의 性格의 差異는 있으나, 바다로부터 來訪한 神이 建國과 治世의 補助役을 擔當한다는 점이 같다. 그러나 羅摩船(가가미의 배)은 韓國神話의 槓, 石函 등 箱舟에 該當하는 것이 된다. 三品彰英은 이런 觀點에서 이 神話를 箱舟漂流型神話라 하고 그 分布가 韓國南部, 日本, 中國沿岸, 東亞一帶, 印度, 티베트까지 廣域에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³⁴⁾ 이런 分布로 보아 韓·日兩國의 이들 神話가 같은 系列의 것임은 勿論, 日本에의 傳播에 韓國南部의 經由를 생각하기에 어렵지 않다.

韓日兩國의 建國神話는 위와 같이 支配者의 出現形式이 類似할 뿐 아니라 建國의 過程을 말하는 이야기의 짜임새에 있어서도 類似하다. 韓半島에 일어났던 國家 中에 日本과 가장 文化的으로 密接한 關係에 있었던 나라가 百濟였으니만큼 이 두 나라의 建國神話가 特別 類似할 것이라 豫測하는 것은 어렵지 않거니와, 事實 檢討해 보면 그 類似性은 立證되는 것이다.

百濟의 建國說話의 要旨는 이러하다.

高句麗의 始祖 朱蒙이 北扶餘에서 亂을 피하여 卒本扶餘로 와서 王位를 잇고 두 아들을 낳으니 長子를 沸流 次子를 溫祚라 했다. 그후 朱蒙이 아직 北扶餘에 있을때 낳은 아들인 類利가 卒本에 찾아왔으므로 朱蒙은 기뻐하여 類利로 太子를 삼았다. 그 때문에 後妻의 아들인 沸流와 溫祚 兄弟는 近臣 十人을 거느리고 卒本을 떠나 南쪽으로 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漢山에 이르러 負兒嶽에 올라 살만한 땅을 보았는데, 兄인 沸流는 海濱을 擇다므로 十臣이 이를 막으려 했으나 듣지 않고 백성을 나누어서 彌鄒忽로 가서 살았다. 한편 溫祚는 河南慰禮城에 都邑을 定하고 十臣으로써 補翼을 삼고 國號를 十濟라 했다. 그런데 海濱의 彌鄒忽에 간 沸流는 그 땅이 土濕水鹹하기 때문에 편히 살 수가 없어 慰禮城으로 돌아와 보니, 河南慰禮는 都邑이 鼎立되고 人民이 安樂하게 生活하고 있었다 이에 沸流는 부끄러워하여 自殺해 버리고, 沸流의 臣民들은 모두 慰禮城으로 모였다. 그 뒤 溫祚에 게는 날로 백성이 즐겁게 따르므로 國號를 百濟라 했다.³⁵⁾

33) 大林太良『日本神話の起源』pp.196-207

34) 三品彰英『神話と文化史』東京, 平凡社, 1971, pp.382-408.

35) 『三國史記』卷第二十三 百濟本紀 第一 始祖 溫祚王條

이 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要約된다.

- ① 兄弟가 지금까지 살고 있던 居住地를 버리고 새로운 國土를 求하여 放浪한다.
- ② 새로운 國土를 정할 때 兄은 바다쪽을 擇하고 아우는 陸地쪽을 擇한다. 곧 兄은 바다의 原理를 代表하고 아우는 陸地의 原理를 代表한다.
- ③ 바다의 原理를 代表하는 兄은 失敗하여 죽고 陸地의 原理를 代表하는 아우는 成功하여 建國하고 國祖가 된다.

大林太良氏は 이 建國說話와 日本의 神武天皇 東征建國傳說을 比較하여 그 類似性を 論證했다.³⁶⁾ 神武天皇傳說의 要旨는 다음과 같다.

아우 이와레비코(神武天皇)와 兄 이쓰세가 다카지호(高千穂)의 宮殿에서 議論하고 天下를 泰平히 하기 위해서는 더 동쪽으로 나아가야 하겠다고 決定했다. 日向을 떠나 豊後·筑前·安藝·備後를 돌고 하야스이(速吸)의 海峽에 이르렀을 때 거북의 등에 타고 온 男子의 길 引導를 받고 難波의 灣을 거쳐 河內에 배에 메었다. 이 때 도미(登美)에 사는 나가스네비코(長髓彦)가 軍士를 이끌고 對戰을 해 와서 兄인 이쓰세는 負傷을 입고 마침내는 紀伊에서 죽었다.

아우인 이와레비코(神武)는 陸地로 하여 동쪽으로 征伐해 나가는데, 熊野에 이르렀을 때 큰 곰이 한 마리 나타났다가 사라지더니 神武나 兵士들이 다 정신을 잃어 戰況이 不利하게 되었다. 이때 이곳의 다카꾸라지라는 者가 惡神을 스스로 배어 넘기는 좋은 칼을 바치므로 이로써 戰勢를 回復하고 다시 나아가는데, 다카기(高木)神이 까마귀를 보내어 길 引導를 해 주어서 惡神들을 征伐하며 東로 東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해서 最後로 나가스네비코를 치니, 이 때 니기하야히가 神武에게 屈服해 와서 「天神의 아드님이 降臨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왔읍니다」고 하며 寶物과 國土를 바치었다. 그래서 神武는 天皇이 되고 天下를 統治하게 되었다.(古事記)

이 이야기도 첫째, 百濟의 建國說話와 같이 兄弟가 居住地를 떠나 새 國土를 찾아 放浪하고 있고, 둘째, 兄인 이쓰세는 沸流처럼 바다의 原理를 代表하는 者로 되어 있고, 아우인 이와레비(神武)는 溫祚처럼 陸地의 原理를 代表하는 者로 되어 있고 되어 있으며, 셋째, 兄은 바다에서 失敗하여 죽고 아우는 陸地에서 成功하여 建國하여 國祖가 되고 있는 것이다. 大林氏는 이 構造의 類似를 注目했다. 이 두 개의 傳說은 神武天皇傳說 쪽이 軍事的, 征服的, 色彩가濃厚한데 대해 百濟의 建國傳說 쪽은 先住民과의 摩擦이 없는 開拓的 色彩가 짙은 점 등 相違點도 없지 않으나, 위의 類似의 指摘은 올바른 것이다.

그런데 兩國의 建國說話의 類似는 이에서 그치지 않는다. 兩國 모두 國祖가 建國을 하는 過程에서 先住者가 正統性を 主張하는 後來者에게 國土를 移讓하는 그 統治權을 바치는 일

36) 大林太良「神武天皇傳說と百濟 高句麗의建國傳說」同氏編『日本神話の比較研究』東京, 法政大學 出版局 1974 pp.98-129

이 겹치고 있는 점이 같은 것이다. 우리는 百濟의 建國說話에서 沸流와 溫祚가 正統性을 主張하는 類利(朱蒙의 元子)에게 國土(卒本)를 讓步하고 南下하는 事件을 보았다. 그런데 그 以前에 朱蒙은 解夫婁에게서 北扶餘를 移讓 받고, 또 南下하여 卒本에서 高句麗를 세우려 할 때 이미 그 땅을 다스리고 있던 松讓에게서 北扶餘를 強制로 國土를 移讓 받았음을 또한 보았다. 이 移讓들은 天帝의 孫 또는 統治者의 長子에게 統治權의 繼承을 認定하고 國土를 讓渡하는 것이며, 그 讓渡는 百濟의 建國까지 적어도 三回를 거듭하고 있는 점이 特徵이다.

그런데 日本의 古典神話에도 이와 비슷한 國土 移讓이 있다. 그 이야기는 위에 例示한 天孫降臨神話의 直前에서부터 시작된다. 即 오오구니누시라는 神이 이즈모(出雲)國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天神인 다카무스비와 아마테라스가 이 國土는 天神의 아들로 하여금 統治해야 할 곳이라 하고 여러 神을 보내어 平定하도록 했으나 뜻대로 되지가 않았다. 天神은 마지막에 다케미카스지神을 보내니, 이 神은 오오구니누시神에게 내려가서 國土를 讓渡하라고 脅迫했다. 오오구니누시神은 두 아들의 뜻을 따르겠다고 하므로 다케미카스지神은 오오구니누시神의 두 아들과 힘 競争을 하고 이겨서 國土를 讓渡할 約束을 받았다. 그래서 天神에게 國土를 移讓 받았음을 報告하니 天神 아마테라스와 다카기(다카무스비)神은 자기의 아들 아메노오시호미미에게 下降하여 나라를 統治하도록 命令했다. 이에 아메노오시호미미는 「下降하려고 準備 中에 다카무스비神의 딸과 자기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들이 適任이라고 進言했다. 아들의 이름은 히코호노니니기인데, 天神은 이 進言에 따라 命令을 바꾸어 내렸다. 이에 히코호노니니기는 三種의 神器와 五伴緒를 거느리고 下降한다. 「日本書記」에 依하던 이때 事勝國勝長狹이란 者が 天孫인 히코호노니니기에게 國土를 바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이야기에는 두 개의 國土 讓渡가 있다. 即 오구니누시가 이즈모(出雲) 國土를 다케미카스지에게 讓渡한 것과 天孫이 降臨할 때 事勝國勝長狹이 히코호노니니기에게 그 統治權을 讓渡한 것이 그것이다. 日本의 神話에는 이 外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神武天皇이 東征 建國時 니기하야히가 屈服하고 國土를 移讓하는 것이 있다.³⁷⁾ 이 讓渡들은 天孫이 國土 統治의 正統者임을 認定하고 그에게 讓渡하는 것이 主旨이고 그 數가 三回라는 데 特徵이 있다. 大林氏는 이처럼 韓·日 兩國 神話의 國土 讓渡가 三回라는 一致點을 보이는 데 注目하였다.³⁸⁾ 그러나, 이 數의 一致는 크게 注目할만한 값어치를 認定하기엔 아직 빠르다. 왜냐 하면 兩國의 神話體系에 있어 三回の 國土讓渡 모티프의 配置樣相이 相違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韓國의 境遇는 解夫婁의 朱蒙에게의 讓渡, 松讓의 朱蒙에게의 讓渡, 다음에 沸流 溫祚의 類利에게의 讓渡를 거친 후 이들 兄弟의 百濟 建國을 위한 競争의 勝敗이야기로 넘어가는데,

37) 大林太良 前掲論文 pp.106—109

38) 前掲書 106—115.

日本の境遇는 出雲國土의 移讓, 天孫降臨時의 國土移讓, 다음에 神武天皇 兄弟의 건국을 위한 勝敗談을 거치고 國土讓渡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더 간단히 말해서 溫祚는 國土를 讓渡한 後 南下해서 兄弟 間에 建國 競爭을 하지만, 神武는 兄弟 間에 建國 競爭을 하여 勝利한 後 第三者에게서 國土를 讓渡 받아 建國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이 國土 讓渡의 三回 配置의 數의 一致가 반드시 同一 類型의 神話體系임을 立證해 주는 것이라 할 수는 없게 된다. 그러면서도 그 讓渡의 主旨가 正統性을 主張하는 天帝의 아들 乃至 孫에게의 讓渡라는 一致點은 重視해야 한다. 실사 國土 讓渡의 數의 一致는 度外視된다 하더라도 百濟建國說話와 神武建國說話의 構造의 一致는 깨지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構造의 一致는 결코 偶然한 것일 수는 없다. 百濟가 日本文化에 미친 役割이 至大한 것임을 想起할 때 이 建國說話의 構造의 一致는 兩傳承이 同一系統의 것이요, 百濟에서 日本으로 전해 준 것임을 말해 주는 것이라 보아야 하며, 나아가 日本의 支配者文化가 韓國의 系統함을 말해 주는 하나의 傍證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IV

이제까지 開闢神話 및 建國神話を 中心으로 韓·日 神話의 親緣關係를 比較 檢討하고 系統論的인 傳播問題를 推定하려고 試圖해 왔다. 그 結果 兩國의 神話는 相違點도 적지 않지만 顯著한 類似點이 많음을 알게 되었다. 開闢神話에 있어서의 國土浮動觀, 天地分離, 生死起源神話에 있어서의 幽明兩界神의 機能 對立競爭 建國神話에 있어서의 天降者의 建國·海洋來訪者의 補佐, 또는 陸地原理者의 勝利, 建國과 海洋原理者의 敗北 死亡, 그리고 天孫에의 國土 讓渡 등 그 類似는 個個의 모티프 뿐 아니라, 神話의 構造面에까지 미치고 있었다.

또한 그 類似를 神話의 顯在的 記錄面으로 볼 때는 開闢神話나 生死神話보다도 建國神話 쪽이 더욱 顯著한 것이었다. 그러나 本考에서의 前二者의 比較는 韓國의 現傳 民間口傳神話와 日本의 8世紀 文獻神話와의 檢討이므로 그 間의 變化過程과 編纂意圖를 計算에 넣어야 하는 것이다. 日本의 文獻神話의 政治的 編纂意圖, 韓國의 現傳 巫俗神話의 宗教的 整理意圖, 거기에도 長期間의 變化過程 등을 考慮에 넣는다면 開闢神話나 生死神話가 本來 建國神話에 뒤지지 않은 一致 乃至는 類似가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類似는 결코 偶然한 것이 아니라, 兩國의 地理的 隣接, 歷史的 接觸, 密接한 文化的 關聯 등으로 보아 同一系統의 것임을 말해 줌과 同時에, 韓國이 恒常 大陸文化를 日本에 전해 주는 仲介的 力割을 해 왔음에 비추어 보아도 日本의 神話가 韓國을 통해 傳播하고 形成되었으리라 推定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古代 日本의 支配者 文化가 韓半島를 經由해 갔으리라는 생각이 나오는 것도 결

코無理가 아니다.

그런데 本考에서 다룬 神話들이 모두 同一한 發源地에서 起源하여 傳播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發源地가 다르면 그 傳播의 經路도 다를 것은 勿論이다. 神話에 따라서는 혹 日本을 거쳐 韓國으로의 傳播를 全然 생각할 수 없는 바도 아니다. 여기에 個個 神話의 傳播經路를 綿密히 檢討해야 할 必要가 있다. 本考에서는 이 作業을 緻密하게 못하고 韓國에서 日本으로라는 推定을 해 놓은 힘이 없지 않다. 이것은 앞으로의 課題다. 그러나 天降型의 建國神話를 비롯한 大陸 起源의 몇 神話가 韓半島를 거쳐 日本으로 건너갔으리라는 推定은 더욱 檢討가 이루어진다 해도 거의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古代 日本의 支配者文化가 韓半島를 거쳐 들어갔으리라는 推論도 또한 별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兩國 神話의 全領域에 걸친 廣範한 比較研究가 進展될 때 이러한 問題는 더욱 分明해질 것이다.

— Summary —

Comparison of Korean Myth and Japanese One

by Hyeon Yong-Jun

I

Myth on the Beginning of the World

1) There appears the view which a land had been floated in the water originally by the myth of beginning of the world of Kojiki and Nihonshoki in Japan. In Korea such a view has been transmitted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by the legend of Bi-yang Island, Neung-la Island, and Going-ju Mountain, etc. Such a similarity establishes the fact that both country had the same myth of the beginning of the world in ancient times.

2) By the myth of Izanaki, Izanami in Japan, they say that the fire divided the heaven and the earth, and the myth of shamanism in Korea explains that the heaven and the earth was divided by the sun. Both myths are similar to cause of explanation for the division of the heaven and the earth.

II

Myth on Living and Dying

The myth visiting Hades written in Izanaki of Japan and the myth producing gods written in shamanism of Korea are similar to explanation on originality of living and dying of human being. Both myths explain that god of this world is living god, and god of the world beyond is dying god, and they say that the gods of both world had a contest of ability, as the result of it god of this world won the game, so that human beings increase. These explanations are just the same in both myths.

III

Myth on Foundation of Country

Myths of Foundation of both Korea and Japan are similar to explanation that the god descending on the forests of mountain established the country, that the god drifting ashore assisted to established the country. And both is also similar to explanation which the fellow who had ruled over the country handed his country over to heavenly descendant asserting his orthodoxy on foundation of the country.

Considered that both country is adjoining geographically, kept in historical contact and the cultural relation, the similarity of above all the myths not only proves its true that they are the same system but it is right in their assumption that the myth of Japan was transmitted and formed through Korea, for Korea has acted as an intermediary constantly. Such a fact gives suggestion to us that culture of the ruling class in Japan was transmitted to them by way of the Peninsula of Korea.